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h1>보도자료</h1>	2017. 1. 20(금)	
		작 성 문 의	국정운영실 외교안보정책관실 외교심의관 김창식 / 사무관 유무호 (Tel. 044-200-2134)
* 즉시 사용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트럼프 대통령 앞 취임 축하 서한 송부

-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공고한 미래 발전 교감
- 미국 新 행정부와외의 정책 조율 및 공조 본격화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미국 현지시간 1.20(금)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제45대 미합중국 대통령에게 축하 서한을 보냈다.
- 황 권한대행은 한·미 양국이 지난 60여년간 공동의 가치와 혈맹의 유대를 기반으로 포괄적 전략 동맹을 구축해 왔으며, 이를 통해 양국은 물론 한반도·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왔음을 평가하고,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과 양국간의 공고한 파트너십을 가일층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하였다.
- 아울러, 황 권한대행은 북핵 문제 등 양국간 공동의 과제에 대한 긴밀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및 신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정부간 정책 조율 및 공조를 본격 진행시켜 나가자는 뜻을 전하였다.
- 한편, 황 권한대행은 이임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도 재임중의 업적을 평가하고 한·미 동맹의 발전을 위한 기여에 사의를 표하는 서한을 전달하였다. 끝.